첫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14번째 하노이 소식

지난 9월 26일에 큰아들 진모와 다은 가정에 하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만 셋인 우리 집에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V' 자를 하며 예정일보다 3 주 먼저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태어났으며, 모유 수유에도 성공하여 이제 7 주가 되었습니다. 진모의 일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신생아 황달이 제법 있어 해가 날 때마다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사랑스럽게 자라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자격증

신경희는 자격을 갖추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난 학기부터 한국어교사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많은 시간을 강의 듣기, 과제,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많은 베트남 대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3 회
베트남 기독의사회(CMFV) 수련회

10월에 제 3회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사랑, 협력, 개발]을 주제로 48명의 회원과 8명의 어린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남부 호치민에서 사역하는 Dr Tu를 강사로 초대하였습니다. Dr Tu는 의과대학을 졸업 후 싱가포르에서 신학공부를 하였고 현재 베트남 기독학생회(IVF) 대표로 4,500명의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총체적 삶과 총체적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남과 북의 좋은 교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강사로는 하노이 국제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야곱(Past. Jacob)목사를 청했는데, 국제교회가 베트남교회와 협력하여 하노이와 베트남을 섬기는 운동(Love Hanoi)을 설명하고, 협력을 의논하였습니다.

예상 밖에 7명의 믿음에 관심을 가진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시작된 지 3년 만에 새로운 젊은 임원진들이 열심히 좋은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5명의 한국인 사역자들도 힘을 합하여 이들을 도왔습니다. 제 1, 2회 수련회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역할을 많이 하였지만, 이번 3회 수련회는 베트남 식구들이 거의 주도를 하게 된 것을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감각교육책

최근 제작한 10권의 책을 시각장애아학교에 한 달씩 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달한 날 아이들이 흥분해서 서로 만지겠다고 책을 두드리는 모습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감격을 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나왔고, 베트남 봉사자의 특별 기고글에도 큰 격려가 되어 자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어회화클럽

신경희가 섬기는 영어회화클럽은 매주 30-40명 참석하고 있으며, 이 클럽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로 오게 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믿음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 영어성경공부 클럽인 알파코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는 베트남 사람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클럽을 섬기는 봉사자들

호스피스요양원 설립

외국인이 부지를 구입하고, 병원 허가를 받는 일이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어, 호스피스를 목적으로 요양원 설립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베트남은 지난 7, 8월에 중부지방 다낭에서 4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여 다낭시를 한 달 이상 봉쇄하기는 했지만, 극복이 되었고 현재는 지역발생이 거의 없으며,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를 조금 유지하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부터의 입국은 여전히 제한이 심한 편이며, 거의 대부분의 입국자는 2주 이상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모 가족과 인모가 사는 **뉴질랜드**도 엄격한 방역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은 거의 없어 일상생활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해외입국자는 자가 격리 없이 호텔에서 2 주간 격리를 시행하며 입국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족 소식

저희 부부는 하노이의 이번 여름을 매우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었습니다. 처음 베트남 올 때는 너무 더워서 쩔쩔 맸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위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맑은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0세 이상 부부팀으로 테니스대회 출전

지난 주 열린 하노이 한인 오픈 테니스대회에 복식 45개 팀이 출전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 팀은 예선에서 3전 3패로 탈락을 하였지만 아내와 나이 합산 123세 최고령 팀으로, 그러나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둘째 경모는 코로나19로 비행이 많이 줄어 어려웠지만 대한항공이 화물운송을 많이 하면서 거의 정상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모는 학교 수업이 재개되어 조금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2021년 1월부터 안식년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사태로 먼저 뉴질랜드에 가서 첫 손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안식년은 우리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손 모아주세요

1. 베트남 기독의사회가 잘 성장하게 하소서
2. 호스피스요양원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3. 한국어 교원자격 공부를 잘 감당하고, 안식년 떠날 준비를 제대로 하게 하소서
4. 영어회화 클럽, 감각교육책 제작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하소서
5. 안식년 기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6. 경모가 진로와 결혼과 삶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소서
7. 인모가 자기 앞 길과 미래를 믿음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찾아 가게 하소서

2020년 11월 14일

양승봉, 신경희 드림

"한국을 떠난 93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교회와 후원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